

한빛원전 6호기 8개월만에 또 멈췄다

냉각펌프 고장 추정... 예비전력 급락 전력경보 '관심' 발령

21일 한빛원전(구 영광원전) 6호기가 갑작스런 고장으로 불시 정지했다. 원인 파악 후 재가동에 수 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불시 정지한 한빛원전 6호기는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납품으로 인해 올해 초 발전을 재개했던 만큼, 8개월 만에 원자로가 다시 멈췄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1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4분 한빛원전 6호기가 원자로 냉각 펌프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장에 의해 불시 정지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원자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발전소 보호계통이 정지신호를 보내 원자로 등이 자동(불시) 정지된다"며 "현재 원자로 출력은 제로(0)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

고 재가동에 들어가려면 일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간당 1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는 한빛 원전이 멈춰서면서 전력수급에는 비상이 걸렸다. 실제 이날 전력 공급 능력이 순간 떨어지면서 오후 한 때 순간 예비력 350만kW가 붕괴, 수급경보가 2단계인 '관심'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올 여름 관심 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6월 5일과 이달 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전력당국은 한빛 6호기 가동 정지로 인해 기존에 시행 중인 절전규제(280만kW), 산업체 조업조정(135만kW), 전압하향조정(73만kW), 민간차량 가동(37만kW), 선택형 피크요금제(10만kW) 등 수급대책에 더해 이날 오후 4시부터 지능형 수요관리(9만kW)를 긴급 투입했다. 자칫, 순환 단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 당국은 비상업무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빛원전에서는 모두 35건의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한빛 6호기를 비

롯한 전국 원전 23기 중 6기가 가동 중단 상태로, 전체 원전 설비용량 2071만kW 중 25.4%(526만6000kW)는 정지 상태다. /박정열기자 halo@



호남고속철 1단계 구간 내년 상반기 공사 완료

(충북 오송~광주 송정)

시운전 거쳐 내년말 개통 KTX-산천 개량형 투입 2단계는 기존 선로 활용

충북 청원군 오송에서 광주 송정역을 잇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182.3km)의 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된다. <관련기사 2면>

시험운전을 거쳐 내년 말 개통되는 호남고속철에는 무릎 간격이 넓어져 일반석에서 발 뻗어도 불편하지 않는 KTX-산천의 개량형이 투입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21일 내년 상반기까지 레일·전력공사·신호 및 통신공사 등 모든 공사를 마친 뒤 시험 및 시운전을 거쳐 내년 말 예정대로 호남고속철 1단계 구간을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착공된 호남고속철도는 내년 말 1단계 구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 송정역과 목포역(48.6km)을 잇는 2단계 구간은 기존 선로를 이용해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다만, 착공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안공항이 완성되면 21일 신규 선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서울 오송~광주 송정까지 운행 시간이 기존 2시간30분에서 1시간32분으로 단축된다. 또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목포 간도 1시간50분으로 줄어든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오세

영 건설처장은 "1단계 구간은 예정대로 개통될 것"이라며 "다만, 2단계 구간은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무안공항 활성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로 실마리가 풀려가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감안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호남고속철도에서 운행할 제1호 고속열차 10량을 공개했다. 이 열차는 3개월간 제작공장 내 시험 운전선에서 각종 기능 확인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운행선(정읍~익산)에서 10만km 이상 시험운전 뒤 실제 운영을 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KTX-산천이 운행하면서 발생한 결함을 분석해 호남고속철 열차는 모터블록 개선 등 주요 고장 원인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좌석 공간을 기존 열차보다 57mm 확대 ▲항공기 타일의 좌석 테이블 설치 등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적용 ▲전 좌석 모바일용 전원 콘센트 설치 ▲인터넷 속도향상을 위한 4G 모뎀 채택 ▲방송채 추가 적용 객실 소음저감 등 승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큰 특징이다. 호남고속철 열차는 7360여명이 투입돼 22편성(220량)이 제작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北 청소년 참가...광주 유엔 YLP 개막

아시아 최초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UN 유스리더십프로그램(Youth Leadership Program·이하 YLP)이 개막했다.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와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은 22일 오전 9시30분 호

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YLP 개막식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열고 13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YLP는 분쟁지역이나 개발도상국 청년들을 스포츠 리더 및 평화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

에는 북한에서 온 4명을 포함해 아시아 19개국에서 33명이 참여한다. 북한 참가자들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광주에도 도착했다. 개막식은 윌프리드 롬케 UN스포츠특별보좌관의 주재로 진행되며 강운태 광주시장이 격려사를 한다. 참가자들은 이어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오전 10시30분부터 에픽스(EPICS) 포럼에 참여한다. 에픽스포럼은 각 분야의 거장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광주유니버시아드와 UNOSDP가 공동 기획한 '국제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에픽스포럼을 지지하

19개국 33명 참여 13일간 각종 행사

며 대학생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은 그레이트 멘토인 테글라 톨로프를 비롯해 7명의 연사가 '스포츠 개발(Sport for Development)'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뒤 참가자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YLP에는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연맹,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코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리더십 강의를 비롯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장애·성평등 교육, 관련 이론 및 스포츠 실기 교육 등을 한다. 참가자들은 광주전통문화관에서 한복 입기, 한국음식 만들기, 다도, 도예, 율리 공예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24~25일에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충주를 방문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와 UN이 공동 개최하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과 에픽스 포럼(EPICS Forum)에 참가한 북한 청년들이 21일 오후 후 행사장인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아차 파업 철회하라”

광주시·지역 경제계 촉구

21일 부분 파업을 실시한 기아자동차 노조에 대해 지역 경제계와 광주시가 잇따라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유희열)는 이날 '기아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영계 성명서'를 내고 "기아차는 파업을 철회하고 기업의 생존과 고용안정,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심각히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계획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며 증산에 맞춰 투자한 협력업체의 피해액까지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만을 하는데도 정년연장, 해고자 원직 복직 등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전형적인 이기주의의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에 대한 대다수 지역민의 자제 호소를 외면하고 파업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기아차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기아차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만들려면 노사의 양보와 타협은 물론 지역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서라도 생산중단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파업이 본격화하면 자동차 증산 차질과 25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의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 압박 등 많은 어려움이 봉착한다"며 "기아차 노사가 긴밀히 협조해 임금협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 9월 4일(수) ~ 13일(금)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TRUE PRODUCTS, REAL PEOPLE. MILLET. 사람보다 높은 산은 없다. 다가가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힘들다. 그래도 올라야 할 산이라면. 진실하라. 진실하라. 진실이 오른다. 이곳도어의 진실-밀레.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